

한·미 청소년 음악단체의 실태비교

- Orchestra 구성원들의 의식을 중심으로 -

장홍용*

목 차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배경
- II. 본 론
 - 1. 단체구성원들의 의식
 - 2. 학부모 의식 및 일반사회 인식
 - 3. 교육 및 연주회
 - 4. 운 영
 - 5. 연습실
 - 6. 악기 및 교육 기자재
 - 7. 재 정
 - 8. 연간 연습계획
- III. 결 론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물리전쟁 시대는 이제 퇴색했다. 지금은 경제전쟁 시대다. 하지만 앞으로 다

*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본 논문은 1998년도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장기 해외파견 연구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가을 21세기에는 문화전쟁 시대가 도래 할 것이다.'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세계의 석학들이 내다본 말이다. 이제 21세기는 시작되었고, 이를 증명이나 하듯이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매우 깊게 인식되어,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하고 있고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프로이트는 문화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나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유형무형의 어떤 것'이라고 규정지으면서 '이는 다만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 간섭하거나 정책적으로 억지로 육성하려 들면 오히려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즉 짧은 기간 동안에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석학들이 이미 예고했듯이 지금은 문화전쟁 시대이다. 여기서 잠시 우리 나라 역사를 돌아보면 물리전쟁 시대에 우리는 한국전쟁이라는 뼈아픈 참패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민족끼리 심지어는 형제끼리 서로 총을 마주 겨누며 싸워야 했다. 최근 들어 이산가족의 상봉장면을 7천만 겨레가 눈물로 TV 앞을 떠나지 못하며 밤잠을 설치고 전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었던 것을 볼 때, 우리 나라야말로 물리전쟁의 최대 피해국이었던 것을 알고도 남을 일이다.

그런데 그 아픔을 채 추스리기도 전에 우리는 경제전쟁 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1997년 11월에는 IMF 구제금융이라는 또 한번의 커다란 치욕적 참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들이 수 없이 넘어가고 아파트에 한집 건너 한집씩 가장이 직장을 잃어 기쁜 일이 있어도 옆집이 눈치 보여 큰소리로 웃지도 못하면서 가슴 조이고 숨죽이며 산다. 사랑하는 처자식 보기 민망하여 차라리 가출해 버리는 실직가장들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부하직원을 잘라 낼 수 없어 차라리 먼저 사직해 버리는 상사의 눈물겨운 사연도 말없이 한숨으로 달래가면서 산다. 이제 중요하게 남아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문화전쟁시대이다.

1) 문화의 중심은 예술이며, 예술의 선도주자는 음악이다.

문화의 중심은 예술이며 예술의 선도주자는 음악이다. 그리고 음악의 꽃은 역시 Orchestra이다.

물론 우리의 고유음악인 민속음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서양음악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서양음악은 세계 전 인류의 음악이요 세계공통언어라고까지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로벌 시대에 국제 무한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서양음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사실 우

리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외국사람들도 이름만대면 알 수 있는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몇몇 음악가들 때문에 우리나라를 알게되고 우리나라를 좋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 이들이야말로 중요한 우리의 문화사절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몇몇 음악가들로만 만족해서는 안된다. 우리 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음악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좋은 음악성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음악가로 만들어 내기에는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에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우리나라에서 음악을 공부해온 것이 아니라, 모두 어려서부터 외국으로 나가서 음악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문제점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연구검토하고 보강해 나가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2) 21세기에 주역이 될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음악

21세기 지구 인류의 주역은 역시 지금의 청소년들이다. 따라서 21세기 문화전쟁시대를 위하여 우리의 문화전사인 청소년들의 음악교육에 많은 연구와 투자가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문화의 중심은 예술이며 예술의 선도주자는 음악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물리전쟁시대에도, 경제전쟁 시대에도 이미 뼈아픈 시련을 겪어왔다. 이제 당면해 있는 문화전쟁시대를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탄탄히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 전사들은 지금의 청소년들이고 그들의 음악은 매우 중요하다.

음악은 인간의 지능발달, 신체발달 그리고 심미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와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상을 들여다보면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중 영상매체를 통하여 빠르고 강렬한 리듬의 대중음악에 깊이 빠져있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다. 이는 정서순화에 커다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청소년들의 정서가 부드럽게 형성되지 못하면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모든 문화가 흔들리게 된다. 지금의 청소년 음악을 건전한 쪽으로 유도육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건전한 청소년 음악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합창단, 오케스트라들에게 지원해 줌으로써 청소년 음악문화를 정상화 시켜야 하고 그 외에도 고전음악 감상실을 많이 운영함으로써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교육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고 본다.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문제점은 모든 사람이 독주자나 독창자가 되기를 원한다. 즉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개개인만을 키우려한다. 합주나 합창을 통한 음악성 개발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독주나 독창은 혼자서 연습하게 되고 안되는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기 때문에 음악의 본질인 시간성에 둔해져서 음악성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음악성이 개발되지 않으면 좋은 음악가가 될 수 없다.

20세기 중엽이후 지금까지 모든 교육의 기틀이 되고있는 어네스트의 통합교육이론도 음악연주와 골프치기를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다. 즉 음악의 시간성을 이용하여 잘되든 안되든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연주해 보고 나서 미흡한 부분을 잠깐 연습한 다음 또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연주해 보고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음악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듯이 모든 교육도 항상 전체가 먼저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음악교육에서도 개인이 안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방법보다는, 합주나 합창처럼 여럿이 모여서 개개인은 잘되지 않더라도 전체는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게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화음을 이루게 되는 연습방법이 음악성을 개발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이다.

2. 연구 배경

필자는 1989년 3월에 사회봉사 차원으로 제주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창설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12년 동안을 지도 운영해 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보람 또한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 동안 200여 명의 단원들을 졸업시켜 왔고, 현재 단원은 80명이며 오케스트라 자체 내에 12명으로 구성된 앙상블도 있고 8명으로 구성된 한국 전통음악인 사물놀이패도 있다. 그 동안 4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음악회도 가졌으며, 일본 나카사키에 있는 주네스 오케스트라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환 방문연주회도 2차례 가졌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타로자 주니어 오케스트라와 자매결연을 맺고 방문 교환연주회도 가져 왔다. 그리고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에 의한 장기 해외 연구교수로 1년간 소노마 주립대학교에서 연구하는 동안에도 매 주말에는 산타로자 주니어 오케스트라에 나가 그들과 함께 지도와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는데,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현황이나 수치에 역점을 둔 것이 아니라, 단원, 지도자 및 실무관계자들의 의식이나 학부모들과 일반사회인들의 내면에 흐르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대한 인식 등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II. 본 론

1. 단체구성원들의 의식

비단 오케스트라뿐만이 아니라 무슨 단체든 그 단체구성원들의 목적의식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단체구성원들의 의식구조에 따라 활동방향이 설정되고 그 방향에 따라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와 미국의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체구성원들의 의식을 책임자, 지도자 그리고 실무관계자들의 의식, 단원들의 의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책임자, 지도자 그리고 실무관계자들의 의식

지도자나 실무관계자들의 의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마치, 목표지점을 설정하고, 정확한 현재의 좌표를 파악하며, 그리고 항해의 정확한 진로나 경로를 바로잡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 궤도를 수정해 나가는 큰 배의 선장이나 항해사, 기관장 등의 역할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청소년 오케스트라 책임자, 지도자, 그리고 실무관계자들의 의식과 미국의 오케스트라 책임자, 지도자 그리고 실무관계자들의 의식을 비교하여 그 문제점 몇 가지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로, 투철한 사명의식과 희생 봉사정신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단체를 책임지고 있거나 지도하고 있거나 혹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관계자들은 자신들이 하고있는 일에 대하여 투철한 사명의식과 희생정신이나 봉사정신이 없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만년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졸업을 시키고 계속 새로운 초보단원을 받아들여 교육 시켜야 하며, 청소년 음

악단체의 단원들은 아직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지 음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 음악단체들은 합주나 합창을 통하여 학생들의 음악성을 개발하고 음악을 통하여 인성교육을 시키는 교육자의 자세여야지, 청소년 음악단체에서 수준 높은 음악을 연주하여 이름을 얻고 출세하려는 욕심은 버리고, 단지 음악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음악성을 개발하고 어린 청소년들의 정서를 함양하여 훌륭한 인격체로 완성시키겠다는 교육자적인 철저한 사명의식과 헌신, 희생, 봉사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 나라 사람들은 미국인들에 비하여 철저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둘째로, 음악에 대한 철저한 프로정신

청소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 그리고 음악은 음악 그 자체의 멋과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음악선생님에 대한 호기심과 인기가 항상 가장 높다. 학교와는 다르게 청소년 음악단체들은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항상 출석률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청소년들에게 학교 음악선생님보다도 훨씬 높은 음악에 대한 열정과 철저한 프로정신으로 음악에 관한 한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절대금물임을 보여 줌으로써 음악을 한층 더 멋있게 느끼게 하고 음악에 대한 매력과 의욕을 고취시킬 수가 있다고 본다. 또 그렇게 됨으로써 단원들이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게 되어 출석률을 높힐 수도 있고 음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도 자연히 생기게 될 것이라 기대가 된다.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미국의 청소년 음악지도자들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크게 느꼈던 게 사실이다.

셋째로, 청소년 심리. 특히 사춘기 청소년들의 심리 파악

청소년기에는 부모나 선생님의 보호를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선배나 친구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경향이 있다. 특히 사춘기에 접어들면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게다가 사춘기에는 정서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청소년 음악단체들은 그 단원 전체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심리나 특히 사춘기 청소년들의 심리를 잘 알아야 한다.

본인은 12년간 제주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운영. 지도 해 오는 동안 사춘기에 접어든 단원들의 학부모로부터 여러 차례의 상담요청이 있었고 그때마다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요즘 집에서 너무 문제가 많아 걱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왔다. 이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해봤지만 방법도 모르겠고 이유도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때마다 슈타이너의 교육이론을 설명하면서 1년 반만 참고 기다리자. 사춘기는 하나의 훌륭한 인격체를 탄생시키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했고, 사춘기가 지난 후에 고맙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어왔다.

사실 단체를 이끌다보면 때로는 강압적으로 끌기도 하고 꾸지람이나 벌을 주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단원들을 잃게 되고 전체통솔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지도자가 싫어서 음악을 싫어하게 될 염려도 있다. 청소년들도 엄연한 인격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원래 사회바탕이 개개인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토론문화가 아주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잘 되고 있다고 본다.

2) 단원들의 의식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커다란 문제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본다. 우리 청소년들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매우 부족하다. 우리는 흔히 미국이나 서양 선진국 사람들을 개인주의자라고 비난한다. 물론 개인주의인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다르다. 개인주의는 인디비주얼리즘이다. 거기에는 철저히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 즉 남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자신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기주의는 에고이즘이다. 여기에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자기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

본인이 2000년 2월에 제주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미국 연주여행을 갔을 때 1주일 사이에 겪었던 놀라운 사실이 있다. 캘리포니아 Santa Rosa시에서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연주회를 가졌는데, 리허설 때 30명 가량의 미국 유치원 어린이들이 30분 정도 참관하고 갔는데 어린 유치원생들이 그림처럼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앉아 있다가 까치발을 딛고 퇴장하였다가 1시간쯤 후 다시 그 어린이들이 소리 없이 와서 1시간을 참관하고 갔다. 선생님에게 물어보니 스케줄 때문에 30분 정도만 참관했었는데 아이들이 원해서 다시 스케줄을 바꿔서 참관하러 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LA로 가서 이번에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연주회 가졌는데 마침 일요일이고 예배 중이어서 교회체육관 겸 강당에서 리허설을 하게 되었다. 유치원 어린이는 고사하고 초·중고 학생들 성인들까지 도대체가 시끄러워서 연습을 할 수가 없었다. 몇 차례를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주의 쥘봐도 그때뿐, 5분도

되지 못하여 똑같은 현상이었다. 나중에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사실 미국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미국의 청소년들에 비하면 이기주의자들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주 부족하다. 모든 단체가 그렇지만 특히 음악단체는 협동심과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개개인들의 기능은 미국의 청소년들에 비하여 앞서 있는데 앙상블에서 많이 뒤떨어진다.

미국 산타로자 청소년들을 지도하면서도 개인의 기능은 우리만큼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신있게, 제주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미국 산타로자에 데리고 가서 연주했을 때도 미국 지도자들로부터 한국 청소년들의 재능에 대하여 격찬을 받은바있다. 그러나 앙상블 면에서는 그들을 따르지 못한다. 남과 더불어 협력하면서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나라 사람들의 문제점이고 그것이 음악으로 그대로 나타나며, 그게 바로 우리 나라 음악교육의 문제점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청소년 음악단체의 책임자, 지도자, 실무관계자들은 항상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음악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학부모 의식 및 일반사회 인식

청소년 음악단체의 책임자나, 직접 지도하는 지도자나, 운영하는 실무관계자들, 그리고 단원들의 의식이 아무리 바르다해도, 청소년 음악단체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식이 다르거나, 일반사회 인식이 바르지 못하다면 올바르게 움직일 수가 없다. 따라서 청소년 음악단체에 대한 학부모의 의식과 일반사회의 인식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점에 대하여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부모들의 의식

우리 나라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1999년 8월 31일 개정 공포된 새 교육법의 이념을 보면 점점 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지리라 기대는 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참교육이 아니라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교육경쟁이라고 뜻 있는 교육자들은 개탄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스케줄을 물어보면 하나같이 엄마에게 물어보아야 안다고 대답한다. 다시 말해서 엄마들이 아이들의 시간을 쥐고 있다. 영어, 수

학, 논술, 컴퓨터, 미술, 무용, 남자의 경우는 태권도까지, 보통 2~3가지 종류의 학원에 보내면서 악기 개인지도까지 합하면 심지어 7가지 종류를 공부하는 학생도 있다.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남이 하는 것은 모두 해야 안심이다. 그러면서도 오케스트라에도 입단을 시킨다. 그것도 남들이 하나까 지지 않으려고 입단을 시킨다. 그러다보니 시간에 쫓겨 결석이 잦아지고 그러면서 아이는 점점 모든 일에 흥미를 잃고 무기력해 진다. 그리고 한국의 오케스트라 단원 엄마들은 모두가 자기의 자녀는 독주자로만 키우려한다. 좋은 독주자로 키우려면 우선 앙상블을 통하여 음악성을 신장시켜야 된다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단체가 잘돼야 개인이 더불어 잘된다는 의식이 부족하다. 내 아이만을 생각하여 모두 내 아이는 제1바이올린 자리에 앉혀주길 바라며 앞자리에 앉기만을 바란다. 연습시간은 싫고 연주회 무대에는 반드시 세우고 싶어한다. 미국의 엄마들은 자식의 인격형성과 정서순화를 위하여 음악을 시키고 있고, 음악을 시키려면 아이를 청소년 음악단체에 신뢰감을 갖고 맡긴다.

2) 청소년 음악단체에 대한 사회인식

미국 대다수의 수준 높은 성인들은 청소년기에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단원 생활을 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갖고있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고 협조적이다. 그리고 악기에 따라서는 개인교습을 받는 학생도 있으나 대부분이 음악단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음악과 접하게 되고, 모든 학생이 악기 하나쯤은 어느 정도 다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특수 부유층 가정의 자녀들만 하는 것으로 잘못된 인식이 되어 있어서 약간은 거부감을 갖고 협조에 인색한 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

3. 교육 및 연주회

음악단체가 연주회를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청소년음악단체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청소년 음악단체는 아직은 음악을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연주회보다는 음악교육을 통하여 단원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원만한 인격형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면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은 음악을 전공으로 할 것인지 취미로 할 것인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학생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기초교육과 음악성 개발교육, 그리고 음악을

통한 인성교육이 최우선이라고 본다.

사실 미국은 그런 면에서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 교육에 최우선을 두며 능력별 편성을 하여 충분히 교육이 되고 연습이 되었을 때 작은 연주회장에서 발표하면서 연주회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연주회를 먼저 정해 놓고 그것도 경쟁적으로 일년에 4~7회 정도 심지어는 10차례가 넘는 연주회를 계획하기도 한다.

일반 전문연주단체는 매일 연습을 하면서 그것도 하루에 적어도 4~5시간을 연습한다. 그러나 청소년 연주단체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씩만 모여서 연습을 하면서 연습시간도 2~3시간을 넘기지 못한다. 따라서 한 달을 연습한다 하더라도 겨우 4차례 정도에 불과하고, 3개월에 한번씩 연주를 한다면 12번 연습을 해서 연주회를 갖게 되는 셈인데 이는 전문연주단체가 일주일 연습하는 것보다도 연습시간이 적은 편이다.

청소년 음악단체는 연주단체가 아니라 교육단체로 생각하고 육성해야 한다. 따라서 음악에 흥미를 갖도록 교육하고 음악을 대하는 태도를 진지하게 갖도록 교육하여 음악을 통해 인격을 원만하게 완성시키고 음악성을 개발시켜 나가야 한다. 연주회 준비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위하여 성취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주회를 기획해야 한다.

4. 운 영

우리나라의 청소년 음악단체를 운영하는 방법은 대개가 책임자나 실권자 한 사람에게 의하여 너무 쉽게 인사, 교육, 연주회, 재정, 예산, 결산 등이 모두 결정되고 집행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런 방법으로 하면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편리한 점은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실권자 한 사람의 색깔이 너무 짙게 나타나게 되어 단체마다 전혀 다른 양태로 된다. 그것이 좋은 의미로 그렇게 된다면 다양하고 특색이 있어서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단체의 색깔이 무엇인지 염려가 되어 입단하기를 망설이면서 관망하거나 의심하는 시선으로 주시한다. 그리고 그 실권자 한 사람이 싫어서 입단을 포기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고 그리하여 같은 지역 내에서도 힘을 모으지 못하고 서로 안목질시하며 다투게 되고 상대방에게 지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연주회를 자주 개최하면서 교육과는 먼 쪽으로 줄달음질 치게 된다.

반드시 운영위원회나 지도위원회, 자문위원회, 학부모회 등 다양한 의결기관

을 두고 더디더라도 결정권을 분산하여,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교육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여러 가지로 제도장치를 두어야 한다. 미국의 청소년 음악단체들은 이런 면에서 우리보다 월등히 우수하여 모든 부분에 신중을 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5. 연습실

음악단체들에게 연습실은 매우 중요하다. 사실 연습실을 구하지 못하면 단체 자체가 존립하지 못한다. 그리고 음악단체의 연습실은 넓은 공간만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첫째로, 방음장치와 흡음장치가 되어야 한다. 방음이 되지 않으면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시끄럽다고 항의를 받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고 흡음이 안되면 내부 잔향 때문에 연습할 수가 없다.

둘째로,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음악단체는 항상 악보등 서류가 많아서 캐비닛, 책상, 컴퓨터 등 사무집기와 용품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사무실이 있어야한다. 특히 전화는 연습 중에는 시끄러워서 통화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으면 불가능이라고 보아야 한다.

셋째로, 비품창고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 특히 오케스트라의 경우는 보편대, 의자, 큰 악기들(콘트라 베이스 4대 이상, 큰북, 팀파니 2짝 이상, 그밖에 여러 가지 타악기)을 보관해 둘 창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요소들이 해결이 되어야하며 또 그런 것들이 갖추어 졌다해도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장소여야하고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따라서 전용 연습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나라의 여건은 그렇지가 못하다.

미국의 경우는 주말에 사용하지 않는 대학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의 강당이 나 연습실, 모든 공공기관의 강당, 연주회장의 부속건물, 성인 전문 연주단체의 연습실, 커뮤니티 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매우 부럽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 보면 각 시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연주단체가 있고 주말에는 연습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청소년 연주단체는 주말에만 연습을 하게 된다. 그 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다. 그런데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나라는 이런 점에서만 봐도 비효율적이고 낭비적 요소가 매우 많다고 생각되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6. 악기 및 교육 기자재

연주단체에서 악기는 필수적이다. 합창단이야 피아노만 있으면 되지만 오케스트라의 경우는 여러 가지 악기가 필수적이다. 작고 일반적인 악기는 개개인이 준비를 하고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큰 악기나 특수악기의 경우는 반드시 단체에서 구비해야 한다. 그리고 보면대 등 필수 교육기자재들도 반드시 단체에서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악기들은 하나같이 고가품들이어서 열악한 우리 나라의 청소년 음악단체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뿐만아니라 우리 나라의 성인 연주단체들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빌려주지도 않는다. 따라서 특수악기가 없어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곡을 경험해보게 할 수가 없고 교육하기에도 어려운 형편이다.

미국의 경우는 대학이나 성인단체의 연습실을 사용하면서 특수악기나 고가의 타악기들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 특별히 준비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악기의 활용도도 높고 비용도 서로 절감되고 매우 합리적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단체가 모든 것을 준비해야하고 활용도는 아주 낮다. 사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립 연주단체들의 악기 보관소에는 구입해 놓고 몇 년이 지나도록 사용 한번 해보지 못한 악기가 많이 있다. 그러면서 빌려주지조차 않는다.

7. 재 정

청소년 음악단체의 재정은 대개가 단원들의 월 회비와 후원회원들의 정기후원금 그리고 뜻 있는 사람이 가끔 주는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연주여행이나 합숙훈련 등 특별행사가 있을 때는 학부모들의 특별회비와 문예진흥원으로부터 약간의 지원금을 받아서 행사를 치루기도 한다.

그런데 제주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경우를 보면 단원들의 월 회비는 매월 2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납부자는 80명 단원 중에서 50명 정도(62%)에 불과하여 일년에 1200만원을 넘지 못하고, 후원회원은 명단에는 80여명으로 되어 있으나 역시 구속력이 없어서 일년에 800만원을 채우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연습실 사용료, 단원 간식비, 악보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연주회를 한번 하려면 약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대부분 초대권이고 입장권 수입은 50만원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연주회를 열수록 적자는 누적된다. 문예진흥기금은 5월 청소년의 달을 기해 특별기획 연주회 1회를 위하여 500만원 지원을 받다가 금년에는 그것조차도 400만 원으로 삭감되어 적자운영으로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특수악기구입이나 필수 교육기자재 구입 등은 뜻 있는 기증자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책임자나 지도자들 그리고 실무관계자들은 교육에 신경이 가 있기보다는 현상유지를 위하여 구걸하러 다니기에 급급하다.

21세기 문화전성시대를 대비해야하는 청소년 음악단체들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이는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 나라의 사회 풍조는 한 사람이 큰 돈을 내서 육성해야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여서 누군가가 돕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일본 나가사키 쥬네스 오케스트라의 경우를 보면 단원회비, 학부모회, 후원회 등에서 지원 받는 외에 육성회가 있어서 130여 회사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서 보조하고 있다. 미국 역시 사회 풍조가 여러 사람이 조금씩 돕는 Donation(기부금)제도가 아주 잘 인식이 되어 있어서 특별행사가 필요할 때는 그 행사의 뜻과 소요경비만 광고하고 나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구걸하지 않아도 기부금이 넘친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Fund raising(자금조달)을 위한 음악회라 하여 작은 음악회를 열면서 단원들이 캔디, 껌, 초콜릿 등을 잠깐 팔아도 1~2천 달러를 간단히 넘기는 것을 보았다. 우리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아주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8. 연간 연습계획

우리 나라에서는 비단 청소년 음악단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즉흥적인 요소가 많은 게 사실이다.

미국의 예를 보면 여름방학이 시작될 때 벌써, 방학이 지난 후부터 다음해 여름방학 전까지의 연습계획서를 작은 책자로 만들어서 미리 단원들에게 나누어 준다. 거기에 보면 매주 연습시간과 장소는 물론 연습곡명, 지도자들의 이름과 지휘자의 이름까지도 기록이 되어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무슨 곡을 파트연습을 하는데 무슨 악기는 어느 연습실에서 누가 파트연습을 시키고, 합주는 어느 지휘자가 시킨다는 것까지 연간 계획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누구든지 그 책자만 가지고 있으면 쉽게 알 수가 있게 되어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본인의 경우도 1년 내

내 따라다니면서 참여했지만, 직접 지도할 기회는 비올라 파트연습 1주와 전체 합주 연습지휘 1주 밖에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있는 동안의 연간 계획이 모두 나와 있어서 중간에 들어갈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 두차례의 기회를 얻은 것은 본인으로써는 매우 행운이었는데, 한번은 비올라 파트의 파트연습 지도자가 마침 신상에 문제가 생겨서 한 주만 다른 지도자로 대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본인이 희망했었고, 또 한번은 비행기로 4시간 거리의 뉴욕에서 오기로 되어있던 지휘자가 그 주는 다른 중요한 연주가 있어서 한 주만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으면 맡기겠다고 사무원에게 부탁하자, 한국에서 온 지휘자가 있으니 직접 부탁해 보라고 소개하여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그 지휘자가 부탁하기를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2번의 4악장과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1악장만 연습시켜달라고 하여, 혹시 시간이 남으면 어느 악장을 연습시켜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상관 없지만 내 계획은 그 두 곡뿐이다. 시간이 되는대로 그 두 곡만 깊게 연습시켜주면 더욱 고맙겠다는 것이다. 그 지휘자도 연습계획이 철저히 세워져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점은 많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 정서로는 불가능이다. 왜냐하면 학교 등 사회 모든 기관들이 같이 연간계획에 의하여 정확하게 움직여 주어야 가능한 일인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이다.

Ⅲ. 결 론

이미 1980년대부터 세계의 석학들은 21세기는 문화전쟁시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제 21세기는 다가왔고 요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매우 깊게 인식되어,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하고 있고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프로이트는 문화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나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유형무형의 어떤 것'이라고 규정지으면서, 이는 다만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 간섭하거나 정책적으로 억지 육성하려 들면 오히려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즉 단기간 동안에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석학들이 이미 예고했듯이 지금은 문화전쟁 시대이다. 우리는 물리전쟁 시대의 한국전쟁이라는 뼈아픈 참패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고, 경제전쟁 시대의 IMF 구제금융이라는 치욕적 참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중요하게 남

아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접하고 있는 문화전쟁시대이다. 문화의 중심은 예술이며 예술의 선도주자는 음악이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문화 전사들인 청소년들의 음악문화를 바로잡고 올바르게 교육시켜 21세기 문화전쟁시대를 대비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청소년 음악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과감하게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이미 석학들이 내다본 문화전쟁시대에 또 한번의 참패를 당하여 선진국의 문화 식민지를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면에 대하여 본인이 12년 동안 제주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지도, 운영해본 경험과 미국 California, Santa Rosa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도 경험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청소년 오케스트라 구성원들의 의식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단체 구성원들의 의식

어느 단체든지 그 구성원들의 의식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단체 구성원들의 의식구조에 따라 활동방향이 아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도자나 실무관계자들의 의식과 단원들의 의식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책임자, 지도자 그리고 실무관계자들의 의식

- ① 투철한 사명 의식과 헌신, 희생, 봉사정신을 갖아야 한다.
- ② 음악에 대한 철저한 프로정신을 갖아야 한다
- ③ 청소년 심리, 특히 사춘기 청소년 심리를 잘 파악해야 한다.

2) 단원들의 의식

- 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 ② 서로 협력하여 이루는 협동심이 부족하다.

2. 학부모들의 의식 및 일반사회 인식

단체를 직접 움직이는 지도자나 관계자 그리고 단원들의 의식이 아무리 바르다해도 학부모들의 의식이 다르거나 일반사회 인식이 다르다면 올바르게 움직일 수가 없다. 따라서 학부모의 의식과 일반사회 인식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부모들의 의식

- ① 모두가 내 아이는 제1바이올린이나 앞자리를 차지하기만 원한다.
- ② 아이들의 시간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여러 가지 공부를 시키고

있다.

- ③ 음악을 인격형성이나 정서함양 등을 위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쟁심으로 시킨다.

2) 청소년 음악단체에 대한 사회인식

미국은 성인들 대부분이 청소년 시절에 오케스트라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사회인식이 바르게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특수 부유층의 자녀만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이 되어 있어서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서 비협조적이다.

3. 교육 및 연주회

미국의 청소년 음악단체들은 능력별로 편성하여 기초교육에 중점을 두어 교육의 일환으로 연주회를 갖지만 우리 나라의 청소년 음악단체들은 연주회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거나 아예 교육을 무시하고 연주회를 위하여 연습만 시킨다. 즉 미국의 청소년 음악단체들은 교육을 위하여 연주회를 개최하는데 반하여 우리 나라 청소년 음악단체들은 연주회를 위한 교육을 한다고 볼 수가 있다.

4. 운영

미국의 청소년 음악단체들에 비하여 우리 나라의 청소년 음악단체들의 운영은 실권자 한 사람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경향이 매우 짙다. 그렇게 되면 일이 빨리 진행되고 편리한 점은 있겠지만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좀 더디기는 하겠지만 운영위원회, 지도위원회, 자문위원회, 자모회, 후원회 등 여러 의결기관들을 두어 서로 협조하면서 운영해야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고 본다.

5. 연습실

음악단체들의 연습실은 단순히 공간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방음시설, 흡음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실이 붙어 있어야 하며, 악기 보문대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비품창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음악대학의 연습실, 초,중고등학교의 연습실, 공공기관의 강당, 연주회장상의 부속건물, 성인 연주단체의 연습실, 등 주말에 사용하지 않는 장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가 매우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커다란 문제점이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 보면 각 시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 연주단체가 있고 주말에는 연습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청소년 연주단체는 주말

에만 연습을 하게 된다. 그 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다. 그런데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이런 점에서만 봐도 비효율적이고 낭비적 요소가 매우 많다고 생각되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6. 악기 및 교육 기자재

오케스트라에서는 악기가 필수적이다. 물론 개인악기는 있지만 큰 악기, 특수악기, 타악기, 보편대 등은 반드시 단체에서 준비해야 하는데 악기들은 고가여서 열악한 우리 나라의 청소년 음악단체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미국의 경우는 대학이나 성인단체의 연습실을 사용하면서 특수악기나 고가의 타악기들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악기의 활용도도 높고 비용도 서로 절감되고 매우 합리적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단체가 모든 것을 준비해야하고 활용도는 아주 낮다. 사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립 연주단체들의 악기 보관소에는 구입해 놓고 몇 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는 악기가 많이 있지만 빌려주지조차 않는다.

7. 재 정

청소년 음악단체들은 대개가 단원들의 월회비, 후원회 후원금, 뜻 있는 사람들의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특별행사가 있을 때는 학부모들의 특별회비와 문예진흥원으로부터 약간의 지원금을 받아서 행사를 치루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사람이 큰돈을 내서 육성해야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여서 누군가가 돕고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일본 나가사키 주네스 오케스트라의 경우를 보면 단원회비, 학부모회, 후원회, 등에서 지원 받는 외에 육성회가 있어서 130여 회사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서 보조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Donation(기부금)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특별행사 때는 그 행사의 뜻과 소요경비만 광고하면 기부금이 넘친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Fund raising(자금조달)을 위한 음악회라 하여 작은 음악회를 열면서 단원들이 캔디, 껌, 초콜릿 등을 잠깐 팔아도 쉽게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아주 부러운 일이다.

8. 연간 연습계획

우리나라의 청소년 음악단체들은 모든 일에서 즉흥적인 요소가 많다. 미국의 예를 보면 여름방학이 시작될 때, 다음 한 해 동안의 연습계획을 작은 책자로 만들어서 미리 단원들에게 나누어준다. 거기에는 매주 연습시간, 장소, 연습곡

명, 지도자 이름, 지휘자 이름까지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무슨 곡을 파트연습하는데 무슨 악기는 어느 연습실에서 누가 파트연습을 시킨다는 것까지 그 책자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되어있다. 우리 나라도 이런 점은 많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나라의 현재 정서로는 불가능이다. 왜냐하면 학교 등 사회 모든 기관들이 같이 연간계획에 의하여 정확하게 움직여 주어야 가능한 일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알아보았듯이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올바르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원, 지도자, 실무관계자, 학부모들의 의식전환이 요구되며 사회인식전환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이제 21세기 문화전쟁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국의 문화속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 음악단체들을 올바르게 육성하여 청소년들의 음악문화부터 바로잡아야 된다고 본다.